

저를 보내십시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VOL. 230
2025 | 봄



해외 선교 사제

9개 국가 | 24명



독일

신정훈 미카엘



일본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14p)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22p)



김성천 스테파노

정해성 베드로

기호배 맛세오



스페인

손우성 미카엘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경진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윤윤상 요셉

김대용 사도요한

목차

- 04 새로운 시작
- 06 2025 선교사의 희년
- 10 2025 새롭게 파견되는 사제들
- 14 선교지 이야기 - 일본, 멕시코
- 24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 26 후원자 명단
- 27 선교를 위한 기도
- 29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30 공지사항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이준호 베드로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18p)



콜롬비아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과테말라

정록수 헨리코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우석제 도미니코
박형문 바오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예언서 6,8)



김동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장



하느님 나라에 닿기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선교'를 선택한 교구의 사제들은 '무언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 됩니다. 교구의 사목을 위해 주교님께 순명하며 권한을 받아 일하는 사제가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다시 막내 새 사제가 되는 기분일 것입니다.

교구 선교 사제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 소식지도 그렇게 새 이름을 달고 새로이 시작하려 합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는 예언자 중 가장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바른길로 걷지 못하는 민족을 질타하였지만, 스스로도 언제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서는 타는 쏫으로 이사야를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사목자를 볼 수 없어 성사생활을 하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의 내용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용감하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구의 선교 사제들입니다.

소식지를 읽으며 함께 그곳 선교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의 소식과 함께 매번 축복의 기도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 선교사의 희년

유동철 리노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 차장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의 희년' 간담회



사진 제공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및 명동성당 사진부

우리는 2025년 정기 희년을 보내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봉사국에서는 지난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헌신에 감사드리고 희년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교사의 희년'에 참석한 외국인 선교사들



'선교사의 희년'은 2025년 2월 발령으로 대만에 파견되시는 두 분의 신부님과,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의 지원 사제로서 선교를 떠나시게 될 한 분의 신부님을 파견하는 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집전하시고, 구요비 욥 주교님께서 공동 집전 해주신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에서는 나이와 국적, 소속 등 모든 게 다르지만, 한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해오신 외국인 선교사분들 - 아기를 품에 안은 평신도 선교사 가족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사제까지 -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앞세워 행렬하며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주교님께서서는 강론 중에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임을 명확히 하시며,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즉 선교사로서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온 생애로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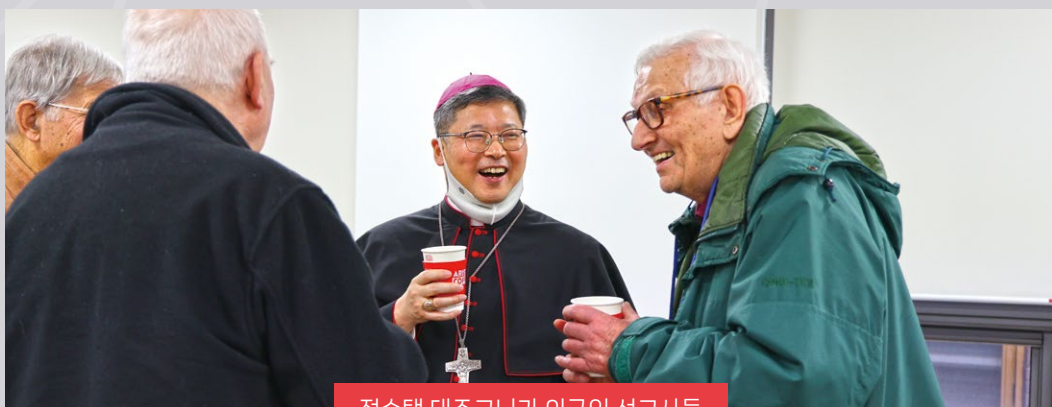
'선교사의 희년' 만찬



특별히 이번 미사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자 하는 세 분의 젊은 신부님들이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나가 계신 선교지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주교님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약 30명의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들, 수녀님들께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된 한국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교란 누군가의 위 또는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선교사 신부님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경험과 나눔을 들으며 이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있다는 체험,

구요비 주교님과 함께 하는 만찬



정순택 대주교님과 외국인 선교사들

선교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Alone, but not lonely)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경청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 후, 만찬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만찬에서는 바쁜 선교사의 삶 속에서 채 만나지 못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와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희년'은,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고향을 떠나온 삶으로 응답하고자 이곳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과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머나먼 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 ● ● 새 롭 게 파 견 되 는 사 제 들 의 이 야 기



사진 제공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및 명동성당 사진부



대만 신주교구

윤 윤 상

요셉 신부



제가 처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계기에는 동기 신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동기 신부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통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기 신부는 신학생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생각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선뜻 수락하지 못했지만, '나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람된 모습으로 페루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 신부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 역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본당을 거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늘 마음 한편에는 좀더 사제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이 지내던 입학동기 신부와 선교에 대한 뜻이 맞아 함께 선교지원사제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작년 9월 대만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휴가 차 한국에 오신 신부님의 권유를 통해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지만, 저의 나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본연의 정체성을 잃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넘어설 때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신주교구

김
대
용

사도요한 신부



찬미 예수님

25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으로 대만 선교를 떠나게 된 김대용 사도요한입니다.

해외 선교 지원 사제 모임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대만이라는 나라로 선교지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대만을 떠올리면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여전히 선교 사제라는 타이틀이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기에 대만 교회와 함께할 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대만 교회를 위해서, 대만 교회와 함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저를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뜻을 실행하는 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만이라는 낯선 교회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하느님, 제게 익숙한 하느님'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 파견을 통해 오롯이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서울대교구 사제로서, 지난 7년간의 본당 사목을 통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은 소중한 체험을 소중한 간직하며,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협력사제

오 병 웅

베드로 신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통해 남미로 선교를 떠나게 된 오병웅 베드로 신부입니다. 제가 선교를 지원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왜 선교를 떠나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본당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요!” 이처럼 제가 선교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본당 생활을 통해 신자분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늘 저를 사랑해주시는 신자분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다른 곳에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역에 그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한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선교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설레고 희망찬 마음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선교를 떠나시는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선교사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요코하마교구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 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79.2%, 불교 66.8%, 기독교1.5%, 기타 7.1%
성인	43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레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구역	대교구 3개, 교구 12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김윤복 모세 신부 | 일본 요코하마교구

저는 강론 때 예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짧은 명언이나 금언을 눈여겨보고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직업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좋은 글을 발견하면 금광에서 금을 캔 것과도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년에 캔 금덩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朝は希望に起き、昼は努力に生き、夜は感謝に眠る。」
적당히 의역하자면 '아침에는 희망 안에서 일어나고, 낮에는 노력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감사 안에서 잠든다.'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희망과 노력, 그리고 감사 안에서 알차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본 요코하마교구에 파견된 지 어느덧 8년째인 저로서는,



선교지 이야기



일상의 하루가 아닌 저의 선교 생활에 관한 금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이제 ‘아침’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제가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만나 미사하고 살아가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보게 될까, 어떤 기쁨을 느끼고 어떤 실망과 좌절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게 될까를 생각하며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며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꼬맹이들이 하는 ‘외국인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본어’와 ‘전기세와 전화 요금을 싸게 해 줄 테니 사장님을 바꿔 달라’는 보이스 피싱 전화는 여전히 무섭지만, 이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모르고 이해를

못 해서 두렵고 신기했던 매일의 일상이 이제는 슬슬 익숙함과 진부함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희망 안에서 일어났던 ‘아침’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설렘이 사라지면 ‘동지애’와 ‘형제애’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희망과 기대라는 설렘이 사라지니, 이제는 화장기 없는 민낯의 일본 교회를 매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민낯, 맨얼굴이라고 해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일본 교회는 어떻냐고 물을 때면 항상 하는 대답이지만, 전 세계 어디에 서나 성당 할머니들은 본당 신부에게 친절하십니다. 총각 혼자 살면서 밥은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며, 일본 할머니, 필리핀에서 이민 온 할머니들께서는 한국 성당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손수 만든 반찬과 맥주 등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 살리신 예루살렘 부인들의 모습을 이곳 일본 교회에서도 발견합니다. 참으로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 요코하마교구에 파견된 8년 차 선교사인 저는 '낯'의 시간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설렘은 점점 열어지고 눈앞에 해야만 하는 일이 보이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조만간 있을 '신자총회'와 사순시기의 전례 준비, 교구 사제 연수와 종교교사를 맡고 있는 두 곳의 유치원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고 신기하던 '아침'이라는 쿡각지가 벗겨지니,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7년, 그 중 고텐바 성당에 부임해서 살아온 5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부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바뀐 것이 없지만 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지금까지 해 왔던 똑같은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껏 해온 것보다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싶고, 미사에 오시는 신자분들의 숫자를 늘리거나 신자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강론을 준비하고 싶고... 이렇듯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에 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본당 신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물론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아침’이 지나고 ‘노력의 낮’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노력 없는 희망은 그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같은 희망이 사라지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주일학교 청년의 부재, 0.35%라는 일본 사회 속 가톨릭교회의 존재감. 이러한 현실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이 고텐바 성당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낮’이 되었음을 깨달은 지금,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미사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사를 준비



하고,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며,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언젠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 등,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회년을 맞이하여, 선교지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 만나는지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희망이 사라지고 노오~력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예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자비와 기도를 청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언어를 넘어 같은 분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

멕시코 몬테레이대교구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면적	1,972,550km ² (세계13위, 한반도의 약9배)
인구	1억 2,864만 9,565명 (세계10위)
종교	가톨릭 82.7%, 개신교 6.6%, 여호와의 증인 1.4%, 무교 4.7%
성인	35명
복자	26명
수호 성인	과달루페의 성모
관할 구역	대교구 19개, 교구 75개, 성직 자치구 4개, 대목구 17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 | 멕시코 몬테레이대교구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2025년 봄호 소식지 원고를 부탁받고 갑자기 예전에 방영했던 한음악경연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희년을 맞이하여 선교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희망을 찾는지, 어떠한 희망을 만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선교지에서 살면서 솔직히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마약과 빈부격차의 현실, 이곳 한인 신자들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노래 가사처럼 '나 하나 노력한다고 달라질까?'라는 생각과 함께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선교지 이야기



사실 그동안은 소식지에도 그렇고 한국의 신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겪는 부정적인 부분을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모든 선교사의 삶이 그러했듯이, 2022년부터 시작된 이곳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신자들 사목을 위해 멕시코 몬테레이에 파견되었지만, 아직 한인 공동체가 독립하지 못했기에, 이 몬테레이대교구의 큰 성당에 얹혀(?) 살면서 한국 신자들 사목과 동시에 멕시코 현지인 사목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사목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목을 같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초반에 스페인어가 안 될 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스페인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일주일에 5일 총 8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자성사, 각종 축복 예식 등 사제를 필요로 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신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일과 주일에 한국어 미사와 고해성사, 그 외 세례 성사, 첫영성체 및 신자들의 교육을 위한 성서나 전례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신자들 사목을 할 때는 한국어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떤 날은 스페인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한국어만 쓰는 날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언어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았 습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많이 부족 합니다. 특히 멕시코 신부님들과 식사하는 시간은 너무나 고역입니다. 말도 너무나 빠르고,





제가 모르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지만, 혼자 먹는 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해프닝은 지금도 너무나 많고, 특히 고해소 안에서는 너무나 괴로웠던 순간이 많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잘 안 들리는 스페인어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스페인어 혼화를 준비하는데,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에 “자녀들에게 잘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입니다. 스페인어 미사를 집전할 때도 미사 중에 봉사자들이 말을 걸어올까 봐 무섭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나를 아무도 찾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겪으니,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선교사 모임인 ‘아미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중남미 국가에서 오신 동료 선교사들(사제, 수도자, 평신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보다 더 어렵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그저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눴을 뿐인데, 그 나눔이 큰 위로가 되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한국에 오셨을 때 오늘날과 같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셨던 것이 아닐까요? 저 또한 여기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는 커녕 부서지고 깨진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얼마 전 제 생일에 많은 멕시코 신자들이 선물과 함께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중 한 신자분이 "이곳에 안드레스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커다란 선물이고 은총이에요."라고 하셨을 때 내가 스페인어로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기초를 세우신 벨기에의 수에넨스 추기경님은 '성령은 나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냐는 그가 희망하는 인간이나 아니냐에 달려있다." 부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짧은 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모든 선교사님, 특별히 서울대교구의 선교 사제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세상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일본

오사카-타카마츠대교구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 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79.2%,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7.1%
성인	43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구역	대교구 3개, 교구 12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 일본 오사카-타카마츠대교구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타카마츠대교구에서 선교사제로 활동하고 있는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현재 저는 고베의 북쪽 산골짜기에 위치한 '스즈란다이'라는 작은 성당의 담당 신부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하는 것 없이, 한국과는 다른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가톨릭교회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본의 가톨릭 현황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목했던 서울대교구 사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23년 일본 가톨릭교회 현황을 보면, 일본 전체인구 1억2천5백만 명 중에 가톨릭 신자는 41만 명, 0.32%입니다. 같은 해 한국의 신자 수는 597만 명, 인구는 일본의 40%이지만 신자 수는 12배 이상인 셈입니다. 거기에 일본도 저출산의



선교지 이야기



영향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이 줄면서 성소자 양성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오사카-타카마츠대교구의 경우도 일본인 신학생이 단 한 명, 그 한 명의 사제 성소에 교구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사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 시설입니다. 일본 전체에 사제가 상주하는 성당 수가 773개, 수도자들이 상주하는 수도원이 51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과 보육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이 758개가 넘습니다. 작은 성당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당과 수도원이 아동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인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톨릭계 학교는 322개 정도가 됩니다.

저는 사목을 하면서 이 학교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중에 많은 수가 가톨릭계 학교에서 세례를 받고 일반인처럼 하느님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필요성, 혹은 하느님의 섭리에 눈을 떠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돌아오는 곳이 바로 가톨릭 성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뿌린 씨앗이 저절로 자라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은(마르 4,26-29)'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일본교회도 점점 쇠퇴하는 속도가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일본의 유치원과 학교, 교육 시설 안에서 하느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좋은 열매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득 이곳 신자들이 기뻐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특별히 주교님이 방문을 해주셨을 때,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동료와 동반자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일본 신자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교님과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한국의 신자들이 일본에 방문하셔서 일본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참례하며 이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희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마침 인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김다솔 야고보 신부

필리핀 요셉의원



필리핀 요셉의원에 의료 봉사를 오시는 분들께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왜 선교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필리핀 요셉의원이 하는 일이 선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도와주고, 집을 지어주고, 식료품을 지원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장학생을 키워 내는 일은, 그저 가난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목인것 처럼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분명히 ‘선교’를 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톨릭이 대다수인 이 나라에 개신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만날 때 이분들은 ‘선교’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선교가 가톨릭 신앙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선교의 의미는 단순히 신앙의 전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암담한 이곳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선교는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가톨릭 신앙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선교입니다.



요셉의원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입니다. 단순히 측은한 마음이나 경제적 불공평에서 나오는 자선보다 더욱 깊은 예수님 체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난한 이들은 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부유한 자들의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강한 권력을 쥐는 자들을 섬기고, 필리핀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원은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높은 위치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약을 사다 놓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를 위해 전원(轉院)을 준비하고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영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이를 위해 새로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환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를 내치지 않습니다. 환대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으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곧, 요셉의원은 의료, 주거, 급식, 장학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천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체험을 하도록 돕는 중입니다. 요셉의원이 해오던 모든 일은 그리스도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왜 가톨릭 국가에 선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리기 위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요셉의원이 지향하는 선교입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 2025년 2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 강문주 | 강민정 | 강선경 | 강선홍 | 강수희 | 강신득 | 강영자 | 강이순 | 강정애 | 감지현 | 강판현 |
 강풍자 | 강현주 | 강혜란 | 고경식 | 고영임 | 고영주 | 고윤숙 | 고은실 | 고의영 | 고정원 | 고혜숙 | 공정삼 |
 광상원 | 광정현 | 광희경 | 구가은 | 구경모 | 구모석 | 구민영 | 구민희 | 구승모 | 구연모 | 구자순 | 권경애 |
 권성혁 | 권오경 | 권오영 | 권익란 | 권호정 | 길혜자 | 김경란 | 김경자 | 김경희 | 김공례 | 김광자 | 김국희 |
 김규엽 | 김규태 | 김기수 | 김기용 | 김길옥 | 김나은 | 김난옥 | 김남균 | 김다영 | 김덕수 | 김덕영 | 김도연 |
 김동구 | 김동분 | 김동현 | 김란숙 | 김명옥 | 김명희 | 김묘식 | 김미경 | 김미숙 | 김미자 | 김미재 | 김미화 |
 김민성 | 김민옥 | 김민주 | 김병국 | 김봉조 | 김상욱 | 김서전 | 김선태 | 김선희 | 김성년 | 김성호 | 김성희 |
 김세령 | 김세인 | 김수정 | 김수지 | 김수진 | 김수현 | 김수희 | 김숙자 | 김순금 | 김순동 | 김순자 | 김순희 |
 김승규 | 김승희 | 김시훈 | 김신순 | 김애생 | 김애정 | 김연수 | 김영미 | 김영신 | 김영애 | 김영운 | 김영자 |
 김영희 | 김옥심 | 김옥제 | 김완식 | 김용기 | 김용해 | 김용희 | 김우경 | 김우찬 | 김원선 | 김원임 | 김원중 |
 김월순 | 김유경 | 김유빈 | 김은자 | 김인수 | 김자원 | 김장묵 | 김재동 | 김점순 | 김정란 | 김정보 | 김정숙 |
 김정애 | 김정오 | 김정호 | 김정희 | 김종철 | 김종필 | 김주영 | 김주현 | 김지민 | 김진선 | 김진영 | 김진홍 |
 김진희 | 김찬순 | 김창민 | 김채영 | 김채희 | 김청자 | 김춘란 | 김춘숙 | 김충희 | 김태순 | 김태영 | 김태윤 |
 김현상 | 김현숙 | 김현정 | 김현준 | 김혜숙 | 김희령 | 김희선 | 김희정 | 나범수 | 나석연 | 나정예 | 남승관 |
 남승민 | 남 정 | 남정희 | 남하현 | 노명숙 | 노승경 | 노승주 | 노혜영 | 류정란 | 맹미숙 | 문월순 | 문준철 |
 문태주 | 민은하 | 민정묘 | 민추자 | 박 결 | 박경숙 | 박경진 | 박경희 | 박고운 | 박금순 | 박기식 | 박다운 |
 박명숙 | 박미자 | 박병선 | 박상우 | 박설진 | 박성규 | 박성분 | 박세진 | 박수진 | 박연수 | 박영숙 | 박영신 |
 박옥희 | 박윤경 | 박은덕 | 박은진 | 박은호 | 박정남 | 박정숙 | 박종숙 | 박주영 | 박준규 | 박지영 | 박지현 |
 박진수 | 박진희 | 박창섭 | 박태련 | 박태안 | 박혜숙 | 박효숙 | 박효진 | 반세록 | 방수희 | 방애자 | 배귀선 |
 배근아 | 배수정 | 배연주 | 배영민 | 배현열 | 백경서 | 백명옥 | 백선희 | 백승자 | 백영숙 | 백용남 | 백은숙 |
 백일순 | 변광국 | 변신호 | 사춘숙 | 서수용 | 서숙자 | 서순자 | 서안나 | 서영숙 | 서영순 | 서영진 | 서용재 |
 서유진 | 서은혜 | 서주영 | 서지영 | 서한나 | 서효숙 | 석정미 | 성경희 | 성락숙 | 성윤석 | 성정민 | 소정윤 |
 손명숙 | 손봉희 | 손태호 | 손효영 | 송금선 | 송기덕 | 송민석 | 송영남 | 송이종 | 송재일 | 송진아 | 송혜원 |
 신경애 | 신미경 | 신상자 | 신선미 | 신선희 | 신수경 | 신수점 | 신양선 | 신윤숙 | 신재승 | 신정삼 | 신정환 |
 신종훈 | 신 현 | 신현화 | 신혜옥 | 심근자 | 심영란 | 안경숙 | 안다영 | 안명순 | 안문숙 | 안성준 | 안숙영 |
 안영춘 | 안종임 | 안형숙 | 안호현 | 안호일 | 양길자 | 양대동 | 양도경 | 양병숙 | 양선자 | 양성훈 | 양정훈 |
 여수남 | 엄인영 | 엄주영 | 엄지원 | 연연흙 | 연정숙 | 연제현 | 연현철 | 염윤희 | 오귀애 | 오미희 | 오세성 |
 오영선 | 오옥남 | 오인환 | 오정석 | 오정훈 | 오종숙 | 오종훈 | 오주현 | 오지철 | 오지현 | 오춘숙 | 오충기 |



오현정 | 오호택 | 오희수 | 오희숙 | 옥다슬 | 왕규철 | 왕은순 | 우종철 | 원경식 | 원영연 | 원인영 | 유경자 |
 유미숙 | 유 숙 | 유승연 | 유윤식 | 유인숙 | 유정식 | 유지민 | 유찬희 | 유한석 | 유한주 | 유해영 | 육소인 |
 윤경애 | 윤도희 | 윤동노 | 윤 배 | 윤선화 | 윤세현 | 윤소영 | 윤재후 | 윤지숙 | 윤지원 | 윤진숙 | 윤필용 |
 윤현옥 | 윤홍자 | 윤효석 | 이강석 | 이경애 | 이경여 | 이경옥 | 이경혜 | 이경환 | 이규원 | 이금숙 | 이금숙 |
 이길자 | 이나은 | 이동근 | 이두식 | 이만수 | 이명재 | 이민재 | 이방자 | 이병열 | 이병주 | 이보차 | 이복금 |
 이복동 | 이복순 | 이상구 | 이상엽 | 이선민 | 이성범 | 이성자 | 이성희 | 이숙노 | 이순금 | 이순명 | 이순이 |
 이순자 | 이승용 | 이양자 | 이연수 | 이연향 | 이영덕 | 이영순 | 이영임 | 이영희 | 이예숙 | 이예진 | 이옥란 |
 이옥희 | 이용승 | 이용희 | 이우령 | 이운천 | 이원미 | 이월희 | 이유진 | 이인숙 | 이인순 | 이인자 | 이재원 |
 이재준 | 이재희 | 이정민 | 이정연 | 이정옥 | 이정원 | 이정희 | 이종월 | 이종임 | 이준협 | 이준화 | 이지옥 |
 이지현 | 이지훈 | 이창경 | 이창엽 | 이채미 | 이철향 | 이춘자 | 이태숙 | 이태종 | 이현경 | 이현아 | 이현애 |
 이형자 | 이해영 | 이 호 | 이홍재 | 이희나 | 이희숙 | 임경애 | 임교선 | 임대흥 | 임동은 | 임목상 | 임미자 |
 임미정 | 임병남 | 임복덕 | 임선훈 | 임수주 | 임용숙 | 임은희 | 임주연 | 임태현 | 임현준 | 임혜자 | 장명훈 |
 장복자 | 장순자 | 장용근 | 장은주 | 장재진 | 장정례 | 장정순 | 장진희 | 장착한 | 장춘자 | 장효숙 | 전경복 |
 전병주 | 전성실 | 전옥순 | 전용민 | 전은경 | 정경화 | 정동옥 | 정명화 | 정병희 | 정상은 | 정상인 | 정선경 |
 정선화 | 정소영 | 정순이 | 정영금 | 정영선 | 정완심 | 정윤희 | 정의동 | 정인호 | 정재현 | 정지혜 | 정진규 |
 정찬훈 | 정철운 | 정태양 | 정평화 | 정홍경 | 정회현 | 정효님 | 정훈채 | 정희자 | 조건웅 | 조경자 | 조나라 |
 조남옥 | 조도연 | 조문경 | 조미랑 | 조성호 | 조우진 | 조운수 | 조원주 | 조주연 | 조현수 | 조혜진 | 조희문 |
 주경희 | 주선미 | 지정순 | 지창순 | 지 형 | 진갑연 | 진정자 | 진창환 | 차영미 | 채상경 | 채종서 | 채행찬 |
 채희정 | 천유진 | 최강호 | 최경희 | 최길분 | 최명근 | 최문성 | 최보성 | 최선명 | 최성지 | 최성진 | 최성태 |
 최세화 | 최소중 | 최승한 | 최영옥 | 최영호 | 최옥경 | 최옥란 | 최 용 | 최운근 | 최원정 | 최윤보 | 최정윤 |
 최정은 | 최정자 | 최제원 | 최준일 | 최지영 | 최진이 | 최한기 | 최현주 | 최형기 | 최호순 | 최희중 | 추명진 |
 탁정환 | 태연순 | 태철민 | 하명자 | 하복례 | 하봉자 | 하정순 | 하지윤 | 한미정 | 한승지 | 한영미 | 한윤예 |
 한은비 | 한정우 | 한화수 | 함재정 | 허 경 | 허미래 | 허영진 | 현문섭 | 현성순 | 현정애 | 현해서 | 홍권실 |
 홍눈솔 | 홍석준 | 홍성숙 | 홍순옥 | 홍승예 | 홍영덕 | 홍재모 | 홍정자 | 홍주희 | 홍청자 | 홍필선 | 황경혜 |
 황규영 | 황복순 | 황영옥 | 황은희 | 황정록 | 황정숙 | 황춘익 | 박마리아 | 성힘찬이 | 돈암동성당 | 킹스쿨학원 |
 단아치과의원 | 박루체박루야 | 봉사당한의원 | 이행자임정옥 | 아름다운치과의원 | Fr.구본석 | Fr.김연범 |
 Fr.김원철 | Fr.박규흠 | Fr.박민재 | Fr.박우준 | Fr.우요한 | Fr.이계호 | Fr.이병철 | Fr.임상무 | Fr.한성호 | 익 명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 루카 9,60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4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_ 02) 727-2407, 2409 | 후원 미사 _ 매월 첫 목요일,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홈페이지 _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신한 140-009-6244 37 | 농협 386-17-00288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 방법 (1, 2 중 택일)



후원 신청 QR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4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집전 윤윤상 요셉 신부(대만 파견)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일시 5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문화관 2층 소성당(꼬스트홀)

집전 김대용 사도요한 신부(대만 파견)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_ 09:00~18:00

점심시간 _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 선교 후원 계좌

예금주 |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신한은행

140-009-624437

국민은행

375-01-0091-080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27-2409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동 가능

구분	날짜	시간	장소
해외 선교 희망 사제 모임	6월 9일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
	9월 15일		
	12월 8일		